

탄핵·특검·국조... 차 퇴진 전방위 압박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이 24일로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2·3·4·5·6·7면〉
우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가 속한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비상사국회의'는 당내 탄핵안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 진영에서 최소한 40명 이상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 의석이 171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탄핵 의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200명) 확보는 시간문제라 보인다.

야권도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더

‘사면下野가’
새누리 김무성 “대선 불출마·탄핵 앞장서겠다”
野, 탄핵절차 본격 돌입... 다음주 초 초안 마련키로
빨라지는 특검... 정유라·장시호 등 국조 증인 채택
검찰, 대면조사 요청... 떠나는 법무장관·민정수석

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초반까지 탄핵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탄핵 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선 총리-후 탄핵’ 입장을 마루고 야권 공조에 힘을 보탤다. 특별검사 인선과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전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발효된 특검법에 대해 법정 기

한인 사흘을 다 쓰지 않고 단 하루 만에 임명 요청서를 송부한 것이다. 청와대는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의뢰하고, 두 야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 주에는 특검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도 30일 기

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조 특위는 이날 최순실의 딸 정유라, 조카 장시호, 언니 최순득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등 증인 명단과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6일 5차 광화문 촛불집회는 참석자가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박 대통령 퇴진 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박 대통령에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데 이어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권이 무너져 내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5차 촛불 집회와 국정조사 기관보고 및 정문회 등을 거치면서 퇴진 여론이 최고조에 달하는 다음 달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중학교 1학년생에 내년 역사 안 가르친다

시교육청, 국정교과서 강행 저지
90개 학교 모두 채택 안하기로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광주지역 중학교 1학년생들에게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기로 했다.

특정 교과를 편성할 수 있는 학교장 재량을 활용해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을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논의하기로 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지 주목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광주지역 90개 중학교의 의견을 수렴,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 교육 과정’에 역사 과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역사 교과서의 경우 1~3학년 중 학교장이 정해 교과를 편성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이렇게되면 광주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1년 간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방식으로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확보해놓고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지역 88개 중학교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주문하지 않았고 나머지 2개 학교도 주문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애초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것을 고시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2~3학년은 내년에 국정교과서가 아닌 기존의 검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만,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교과서를 사야 하는 만큼 광주교육청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지만 확인된 국정교과서로 인한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4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광주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다른 교육청과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장 교육감은 교육과정 편성권과 수업권을 활용해서 국정화된 역사교과서가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공개될 국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 역사학계 등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 수립’으로, 5·16 군사정변, 유신체제 등에서 박정희 시대 ‘독재’를 언급하는 대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성장 과정과 관련한 긍정적 서술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당, 광주 5·18광장서 출정식 23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광주전남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사선 앞줄 가운데) 대표와 국회의원·당직자·당원 등이 ‘박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금고 광주은행·국민은행 선정

금융기관 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4조원대 광주시금고에 광주은행이 제1금고로, 제2금고로 국민은행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23일 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상수도, 하수도 등 특별회계 11개를, 2금고는 수질개선 등 특별회계 4개와 재해구호기금 등 기금 16개를 관리하게 된다. 약정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4년이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은 지난 1969년부터 2020년까지 시금고 운영을 맡게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번 금고 공모에는 1, 2금고로 지정된 두 곳 이외에 농협이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선정 결과는 4년전인 지난 2012년과 같다. 광주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정공고를 한 뒤

다음달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1금고는 4조2900억원, 2금고는 1240억원으로 추산된다. 평균잔액은 4000억원 규모다. 광주은행 송종욱 부행장은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에게 재신임을 받게돼 사명감이 더욱 커졌다”면서 “47년간 시금고 지기 노하우를 살려서 지역은행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헌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현웅 법무·최재경 민정 사의... 靑 “수용 여부 결정 안 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취재자에 문자를 보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김 장관은 지금의 상황에서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공직자로서 김 장관과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저도 공직자 도리 상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단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내달부터 특검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상황에서 김 장관과 최 수석을 교체하면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

계룡건설

봉선생활에 푸른가치를 더하다

용산지구 RicheVille 리슈빌

BIG PLUS PREMIUM

봉선생활 프리미엄 | 명품자연 프리미엄 | 명문학군 프리미엄 | 주거가치 프리미엄
생활의 중심, 봉선동 생활권 | 3년이 선으로 둘러싸인 단지 | 봉선동의 우수한 교육환경 | 용산지구 유일, 중대형 최대단지

문의 062-651-0333

총820세대 76/82/84/91/106/114m²

11월 25일 OPEN 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지구 2블록, 대지면적: 47,619.00m², 건축면적: 132,212.679m², 연면적: 199,966m², 건폐율: 17.42%,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 16~26층, 107세대 820세대

* 건물외곽 및 외관 조경 식재 등은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정결과 및 각종 환경의 검토에 따라 상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과 도면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인허가 과정 및 개발계획 변경과정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실린 이미지 및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본 홍보물이나 현장에 문의하십시오.

시행: KR산업 | 시행: 계룡건설

건분주택: 광주 광산구 장덕동 1298번지